



강원도 홍천 골말에 북카페 피스오브마인드 낸 부부 김종현, 이형숙

산 아래서 빵 굽고 책 읽고... 골말에서 찾은 다음의 평화

작년 여름 강원도 홍천으로 한 부부가 이사를 왔다. 남편 김종현(57) 씨는 서울 토박이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속옷업체 (주) 남영 L&F(구 비비안)의 최고경영자 출신이었고, 아내 이형숙(52) 씨는 전통음식과 서양식 빵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교수였다. 눈에 띄는 것이 홍천과 어울리지 않는 이력뿐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홍천까지 한 부부의 이사에 트럭 12대가 동원됐다. 물론 세간 때문이 아니다. 트럭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고서 1만여 권, LP 음반 500여 장, 기타 수집품 3,000여 점. 아무에게나 이삿짐을 맡길 수 없었던 김씨는 남들 다 하는 포장이사도 못하고 손수 수집품 싸느라 몸이 상할 정도였다.

“작년 6월이었습니다. 원래는 시골의 폐교를 하나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그동안 모은 고서목록을 작성하고 계획했던 원고를 쓸 생각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홍천에 있는 아르마허브동산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전산을 좋아하는데 해지는 서쪽으로 공작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 풍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김씨와 이씨는 백두대간 종주뿐만 아니라 안나푸르나 트래킹을 다녀올 정도로 산을 좋아했다. 서쪽으로 아홉 개의 봉우리가 공작의 깃처럼 펼쳐졌다 해서 이름 붙여진 공작산은 이들 부부의 마음을 풀어 놓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김씨는 대학 졸업 후 입사한 비비안에서 27년간 일하며 최고 경영자 자리까지 올랐다. 대학에서 동양철학과 불교에 심취했고 고서수집이 취미였던 김씨는 외국출장을 가더라도 일을 마치고 나면 고서점을 순례하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단원 김홍도 삼화가 그려져 있는 금속활자본 《오류행실도》, 춘향전을 개작한 신소설 《옥중

화》, 우리나라에 최초로 성경이 소개된 내용이 담겨 있는 알세스트호의 항해서 《한국 서해안 항해기》 등이 그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책들의 목록이다.

“임어당을 좋아해 동양인으로서의 최초로 영어로 출판된 《생활의 발견 The Importance of Living》 오리지널판, 중국어판, 대만어판, 한글판, 일본어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불교 철학에 관한 책도 있는데 모두 중국어, 영어, 한국어 등 2개 국어로 쓰인 책입니다. 이처럼 여러 개의 언어를 비교해서 책을 읽다보면 하나의 언어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그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게 고서수집의 매력이지요.”

20여 년 전 독일 뒤셀도르프 지사장으로 근무할 때였다. 김씨는 성주城主의 서재를 리모델링해 레스토랑을 만든 것을 보고 언젠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을 만들어봐

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인 사업모델은 미국 뉴욕 맨해튼 소호에 있는 고서전문 북카페(www.housingworks.org)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로마허브동산에서 20분 거리의 홍천 읍내에 아파트 두 채를 임대받아 짐을 풀어놓은 김씨 부부는 작년 10월 말 북카페 피스오브마인드를 열었다. 손님 맛을 테이블과 주방조리시설을 새로 들여왔을 뿐 소파, 책장, 책, 각종 인테리어소품 등 나머지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 그대로 사용했다. 서울근교도 아니고 이처럼 외진 곳에 빵집과 북카페를 여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문에 김씨는 의외로 성공을 확신했다고 말한다.

“저희 내외의 인건비를 빼고 계산해보니 작년 12월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큰 이익은 없어도 운영은 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이미 검증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씨 내외는 서울에 있을 때도 집에 손님 초대하기를 즐겼다. 책으로 둘러싸인 화장실 등 고서와 각종 소장품들이 진열된 집안의 분위기와 아내 이씨의 훌륭한 음식 맛은 손님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홍천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 여기에 빼어난 음식과 고서가 합쳐진다면 이색문화공간의 삼박자가 맞은 셈이니 소문만 난다면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이들의 눈에 띄는 이력과 책과 빵, 즉 ‘마음과 몸의 양식’이라는 독특한 컨셉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고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다. 고서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대학교수부터 책 자체를 좋아하는 북마니아, 한적한 곳에 카페를 열고 싶어 하는 사람 등 방문객 층도 다양했다.

“얼마 전에는 국내 첫 미술사학자인 고 고유섭 선생의 따님이 이곳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딸들에게 생일을 여가서 보내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특히 저자들이 찾아와 자신이 직접 사인한 책을 놓고



● 김씨는 손님들에게 자신이 소장한 고서들의 구입경위와 의미를 들려주는 게 낙이다.



갈 때는 이곳을 만든 보람을 느낍니다.”

김씨에게서 과거 CEO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홍천으로 이사오고 나서 야 운전면허를 딴 김씨는 면바지에 조끼를 입고 서빙을 한다. 홀을 안내하며 일일이 자신이 소장한 고서들의 구입경위와 의미를 들려주는 것 또한 김씨의 낙이다.

조금만 있다보면 홀을 오가는 사람들이 손님인지 이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요리강의를 하던 아내 이씨는 이곳은 다른 전원 카페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음식과 차를 팔기는 하지만 장사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자연을 배경으로 책과 사람과 음식이 어울려 웃음꽃을 피우는 조그마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들 부부의 바람이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역대 연봉을 마다하고 외진 곳으로 갔냐구요. 역대로 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로 벌면 역대로 쓰고 백대로 벌면 백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과 이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 주민들이 골말이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서울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씨는 이곳에 세필지의 땅을 샀다. 하나는 소지도인 서예기념관 겸 김씨 내외가 거처할 곳이고 다른 하나는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곳이다. 김씨는 이곳에서 불교철학 에세이를 쓰고 불교, 주역, 장자, 옛시 등 동양고전에 관한 ‘피스오브마인드peace of mind’ 시리즈를 낼 생각이다. 당장 올해는 검여劍如 유희강, 소지도인昭志道人 강창희, 송천松泉 정하건 등 해방 이후에 이름을 떨친 서예가의 삶과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책과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할 예정이다. 바쁜 것으로 치자면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덜하지 않다. 하지만 피스오브마인드라는 카페 이름처럼 이들 부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다. **한글**

취재 신동섭 기자·사진 김태경 기자